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열정! 열정! 열정!

낭만과 열정으로 전국을 누비는 YTN 백패킹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글. 최영준 YTN 제작기술부 사원

사진 출처 : pixabay

YTN 백패킹 동호회는 어떤 곳?

YTN 사내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동호회가 11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20명에서 25명 내외의 인원으로 운영되는데, 저희 백패킹 동호회는 현재 23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모여 있어 한 번씩 모일 때면 명절 대가족이 모인 듯 푸근한 분위기에 취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캠핑을 즐기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동호회가 시작된 지는 8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한 기술국 선배님 네 분 정도로 시작했다고 하네요. 캠핑보다 등산을 위주로 하다가 점차 백패킹과 캠핑에 눈을 뜨고 장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등산을 좋아하는 동료분들이 많아서 최소 동호회 구성요건인 20명을 채우

자마자 본격적으로 동호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캠핑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년 정도 되었고 동호회에 가입한 지도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충무를 도맡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저희 동호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동호회입니다. 저나 동호회 회원 누구에게라도 가입 의사를 밝혀 주시면 심혈을 기울인 엄정하고 간소한 심사절차와 부담 없는 가입비, 합리적인 약관계약서 작성 같은 것 전혀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동호회의 매력?

백패킹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아무나 쉽게 접할 수 없는 장소에서 나만의 풍경을 소수의 지인들과 즐기는 것입니다.

아끼는 동료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며 재충전하고 나면 다시금 뿔 수 있는 에너지가 차오르는데, 행복한 기분도 느끼고 지인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더욱이 쉽게 정복하기 힘든 산행을 극복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이랴도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장비 구매할 것? 초보자도 가능?

캠핑을 시작하는데 많은 분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죠. 텐트부터 사야 하나? 계절별로 구매해야 하나? 침낭은 여름에도 꼭 있어야 할까? 배낭은 어떤



2022년 7월 동호회 정기 모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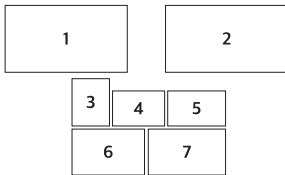
동호회 회원 캠핑 사진



브랜드가 좋을까? 하지만 저희 동호회는 이런 고민 없이 캠핑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과 건강한 신체만 가지고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백패킹으로 혼자 등산하게 되면 텐트, 침낭, 식기 등등 많은 장비를 필수로 챙겨야 하는 것은 당연! 하지만 저희 동호회에 일단 오시면, 숙련된 경험자들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어서 캠핑 시작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이고, 캠핑 장소, 숙련된 노하우까지 전수(?) 받을 수 있어 초보자도 무리 없이 백패킹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주기는? 주요 활동?

1년에 2차례 동호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정기 모임이 있고, 각자 회원별로 혹은 소수의 인원끼리 시간을 맞춰 캠핑을 진행하거나 백패킹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생활 틈틈이 시간을 내야 하니 모든 회원이 다 모이기는 힘든게 현실이네요. 그래도 매 분기 한두 팀 정도는 백패킹을 나가고 있습니다.



- 1,2_ 동호회 회원의 몽골 캠핑
- 3_ 불멍의 필수품 화로대
- 4_ 동호회 회원의 캠핑 사진
- 5_ 2020년 여름 글쓴이 캠핑 사진
- 6_ 2022년 동호회 정기 모임
- 7_ 캠핑 야경

동호회 활동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딱딱한 분위기의 사무실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대화가 가능한 점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백패킹을 나가면 탁 트인 하늘과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선배들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고민 상담이나 회사 생활에서 팀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들로 인해 생긴 오해들을 자연스럽게 꺼내어 소통하는 것보다 회사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까 싶네요.

주의할 점?

백패킹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날씨와 컨디션 조절, 조난 방지입니다. 폭우나 태풍, 폭설이 내리는 날에, 산행은 가급적 피해주셔야 합니다. 요즘 백패킹 장비들이 많이 경량화되었다고 하지만 여러 장비를 챙겨 백패킹을 떠날 경우 평소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움직이게 되므로 사전에 준비운동은 필수이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전날 충분한





한 휴식을 취해주어야 합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상이나 사고에 대비해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조난 구명품도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캠핑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고요한 산의 적막 속, 볼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 앞에서 따뜻한 한잔의 여유를 손에 쥐고, 텐트를 등진 채 지평선을 가르는 여명을 바라보는 순간의 가슴 벅찬 감동.

등줄기에 흐르는 땀과 후끈한 여름의 기운에 지쳤어도, 능선 한구석 나무 사이로 보이는 뽕 뚫린 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한가득 안고 텐트에 누우면 느껴지는 해방감.

가보지 않고는 실감할 수 없는 수많은 명소. 캠핑하면서 느낄 수 있는 매력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요즘엔 백패킹, 차박, 글램핑, 캠핑카 등 캠핑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캠핑의 매력에 눈을 떠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캠핑의 시작을 망설이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캠핑을 시작하세요! 행복해지실 겁니다! 🏕️

